

“시장경제 존중하고 광주·전남 기업 소중하게 생각해야”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인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대체로 기업(企業)은 근대 산업혁명 이후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으로 노동력을 사들여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한다. 자본을 가진 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데, 주식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도 있다. 이윤 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 시민 또는 지역·정부와의 마찰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19세기 영국의 상당수 기업들은 성인만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해 열악한 노동 여건 속에 이윤을 높이는 데만 전력을 쏟았다. 매연과 분진·오염수로 도시 위생은 엉망이 되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노동자들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잦았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규제에 나서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기업주에 맞서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일부 기업가들은 새로운 시도에 나서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면 노동능력과 의욕이 높아져 이윤이 증대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실천한 영국 최대 방직공장 지배인 로버트 오웬(Robert Owen, 1771-1858), 대규모 공장가와 함께 노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배후 도시 샤프타어(Saltair)를 조성한 티투스 솔트(Titus Salt, 1803-1876), 직원들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정



원·마당·신선한 공기 등을 갖춘 저렴한 주택과 교육시설 등을 제공한 조지 캐드베리(George Cadbury, 1839-1922) 등이 있었다. 이들이 기업주·노동자 간의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했고, 각각 다른 의도도 있었지만,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한 당시 기업과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향후 기부·기여·공헌·봉사하는 기업가의 표상이 됐다.

기업이 생존을 넘어 지속적으로,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하면서 일자리를 꾸준히 제공하고, 지역·

글로벌 시대 선진기술 받아들이는 변화와 혁신이 지역 제조업 살 길

1979년 창업 45년간 12번 업종 변경, 10번 성공하고 2번은 실패

국가 발전에 기여·공헌하는 것처럼 훌륭한 시나리오는 없다. 이는 자체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사 관계가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기업가의 의지가 더해져야 가능하다.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에 비해 기업 수가 적고, 특히 대기업, 나아가 중견기업마저도 극소수인 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면 기업의 존재 자체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수가 있다. 이 단체는 1952년 12월 제정된 법률 제274호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 법의 목적은 “상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광주와 나주·곡성·담양·영광·장성·화순 등에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운데 6개월 매출 50억원(전남은 25억원)이 넘을 경우 광주 상공회의소(이하 광주상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임의·특별·준회원 등도 있으며, 가입신청 후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1936년 설립됐다가 해방 직후인 1946년 7월 재설립된 지역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 기업 유치, 업계 권익 대변, 회원 간 교류 및 협력 사업, 기업 지원 및 교육, 조

사 및 연구를 통한 정책 발굴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25번째 회장은 한상원(70) 다스코(DASCO) 회장으로, 18년 만에 경선을 거쳐 9년 만에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의 대표이사인 광주상의의 수장이 됐다. 지난 3월 20일 취임한 그는 창립 45주년을 맞은 매출 3780억원(2023년 현재)의 중견 기업을 이끌고 있다. ‘혁신’으로 기업을 일구고, ‘공헌’하기 위해 이익을 나누며, ‘봉사’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리를 맡고 싶었다는 그에게 광주·전남의 발전 방안, 기업 운영 비법, 지역 미래 구상 등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사가 화제였다.

▲솔직한 저의 성장 과정과 취임하는 심정,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는데, 강기정 광주시장께서 공직자들에게 취임사를 한 번 읽어볼 것을 권유하면서 회자가 된 것 같다.(그는 취임사에서 “광주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고 있다”고 말해 박수 세례를 받았다.)

-지금의 다스코를 만들어낸 과정을 듣고 싶다.

▲1979년 스물다섯의 나이에 아버지에게 팔 80가마, 200만원의 자본금을 지원 받아 친구와 동업으로 대인동 건자재 골목에서 구멍가게로 출발했다. 올해로 45주년이 되었다. 1983년 2월 동아산업을 개업해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 가드레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1996년 본사를 화순으로 옮

겼으며, 주력이었던 가드레일은 자회사에 남기고 이제는 도로 안전시설, 철강재,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단열재, 방음벽 등 다양한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객이 있고 시장이 형성되는 곳으로 이동해왔다.

-혁신이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이다. 피나는 노력이 동반되는 일이다. 지금까지 12번 업종을 변경했는데, 2번 실패하고 10번은 성공했다. 가드레일을 만들어 20년을 살았는데, 임계점이 오고 사업이 정체되면서 2008년 충남 당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필요한 건축자재인 데크플레이트를, 2013년 수직계열화를 위해 단열재 사업을 시작했다. 5년간 매년 20억~3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고 정상화시켰다. 6년 전에 태양광 등 미래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진출했다. 신재생에너지 또한 5년간 계속 적자를 보다가 올해 흑자로 돌아섰다. 지금 연구개발팀들과 함께 신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인 중간 소음재를 개발 중에 있는데, 내년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다스코(DASCO)라는 회사의 이름은 ‘Development Advance Solution Cooperation’의 앞 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솔루션을 개발하고 선도하며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실패담을 듣고 싶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남도 ‘지역산업육성’ 우수 성장사다리 지원 등 호평

전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2023년 실적)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성장사다리 지원, 시군 연구사업 등 지역 특화기업 육성 실적을 평가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비수도권 14개 시·도가 매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세우고, 지역 특화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총 197억원을 들여 소재부품, 에너지, 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53건, 사업화 8건, 정책 지정 7건 등 68개 지원과제를 추진했다.

특히 창업부터 선도기업, 강소기업 등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지원사업’과 시군별 특화산업을 지원하는 ‘시군연구사업’ 분야에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역산업진흥원, 대학, 기업 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규 고용 325명, 사업화 매출 897억원, 특허·인증 172건 등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돼 인센티브 사업비로 국비 17억8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 수박 맛 보세요” 1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올 여름 출하된 ‘무등산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풍미와 감칠 맛으로 과거 임금님에게 진상되던 지역 특산물이다. 광주점은 가족들이 한 데 모여 먹기 좋은 7kg대 수박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물용으로도 적합한 15kg 이상 수박을 판매하며, 주문 예약도 접수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풍수해 업체 경영자금 1000억 지원

1.0%P 금리 업체당 최대 3억원

광주은행이 올여름 풍수해를 입은 업체들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올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았던 수도권 및 중부지역까지 포함된다.

지원금은 신규지원 500억원, 만기연장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이며, 업체당(개인사업자 포함) 최대 3억원, 개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0%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당행 대출 만기가 가까운 피해업체의 경우 별도

의 원금 상환없이 1.0%포인트의 금리감면과 더불어 1년 이내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금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또 광주은행은 풍수해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기업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피해 현장에 파견해 현장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강지훈 광주은행 여신전략부장은 “광주은행은 신속한 금융 지원을 실시해 피해업체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해양에너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5년째 참여

해양에너지가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해양에너지는 5년째 광주시 청년 일자리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해양에너지에 따르면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광주시와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광주시 거주 청년층의 직장경험 및 기업의 구인매칭을 통한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속 시행되고 있다. 해양에너지는 올 하반기 선발된 12명의 드림청년에게 오는 12월까지 직장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에너지 관계자는 “해양에너지는 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및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경총 신입사원 직장 적응 프로그램 인기

상반기 관리자·직원 520명 참여 9월 12일까지 하반기 참여자 모집

광주경영자총협회가 9월 12일까지 하반기 ‘직장 적응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1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청년성장 프로젝트’ 중 하나인 직장 적응 프로그램은 입사 초기 신입사원이 겪는 고충과 업무 스트레스 등의 해소방법을 교육해 퇴사율을 낮추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 상반기에만 기업 관리자 290명과 신입직원 230명, 총 52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당초 목표 인원(350명)을 웃돌았으며, 하반기 사전 신청인원을 합하면 연간 1000여명이 예상된다. <사진> 직장 적응 프로그램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 적응과 조직생활에 도움됐다는 응답률 96.3%, 강사 전문성과 강의법 만족도는 97.5%에 달했다.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관리자와 신입사원 중 선택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 회사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은 광주경총 일자리사업부로부터 문의하면 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키우는 것이 경영성과와 기업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인재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지역 많은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근속하여 기업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전남도가 수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전남지역에서 공산품을 제조·생산하고 공산품 수출 실적이 지난달 1일 이후 1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업당 월 최대 1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종료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매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8월 신청분의 경우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로도복권 (제 113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7	19	28	34	41	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404,951,807	11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0,398,334	73
3	5개 숫자일치					1,428,736	3,086
4	4개 숫자일치					50,000	148,359
5	3개 숫자일치					5,000	2,463,697